

中韩对照+MP3光盘+ 韩语学习经典

傅文慧 主编



峥嵘之路

韩国最热门人物

TOP35的励志人生

Top
35

그들만의 길

한국 인기 인물 TOP35 의 인생 이야기



中国宇航出版社



峥嵘之路

韩国最热门人物
TOP35的励志人生

Top 35 그들만의 길
한국 인기 인물 TOP35 의 인생 이야기

主编 傅文慧

编委 邓倩 王欣 李啸闻 张艳菊 张晶晶

张毛毛 杜翠芳 姜遥 徐春兰

 中国宇航出版社

· 北京 ·

版权所有 侵权必究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峥嵘之路：韩国最热门人物TOP35的励志人生 / 傅文慧主编.
— 北京：中国宇航出版社，2009.1

ISBN 978-7-80218-498-5

I. 峥… II. 傅… III. ① 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 成功心理学－通俗读物 IV. H559.4:B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8) 第 164982 号

策划编辑 李士振 装帧设计 03 工舍
责任编辑 李士振 责任校对 纹 绘

出版 中国宇航出版社

社址 北京市阜成路 8 号 邮编 100830
(010)68768548

网址 www.caphbook.com/www.caphbook.com.cn

经销 新华书店

发行部 (010)68371900 (010)88530478(传真)
(010)68768541 (010)68767294(传真)

零售店 读者服务部 北京宇航文苑
(010)68371105 (010)62529336

承印 北京智力达印刷有限公司

版次 2009 年 1 月第 1 版 2009 年 1 月第 1 次印刷

规格 880 × 1230 开本 1/32

印张 11.375 字数 296 千字

书号 ISBN 978-7-80218-498-5

定价 22.80 元 (附赠精选阅读 MP3 光盘)

本书如有印装质量问题，可与发行部联系调换

前言

峥嵘之路，一段充满艰辛的荆棘之路。

所谓峥嵘之路，原本经历起来是苦的，但是一路走来，获得成功，当一段段奋斗成为记忆，却是甜的。对于经历者，他们会微笑着回忆道：“那是一段令人难以忘怀的心路历程。”

而我们局外人重读他们的励志之路，并不能嗅到他们当时披荆斩棘的血腥，更多的是在惊叹他们披荆斩棘的身影如此豪迈，他们的勇气和魄力如此值得崇拜。我们也看到了，一段段充满挑战的荆棘之路。

本书选取了韩国最热门的三十五位成功人士，讲述他们的励志人生。他们之中，既有国家首脑、民族英雄，又有畅销书作家、大企业财阀、职业玩家、影视巨星，甚至普通白领。他们之中，大多从社会的中下层靠个人奋斗取得今天的成就，当然也不乏衔玉而生的豪门子弟、天生丽质的上帝宠儿。但是，即使是这类人，我们也发现，若不是付出了百分之二百的努力，他们也是无法摆脱“泯然众人矣”的命运。

本书收录的励志故事，囊括了韩国政治、艺术、影视、体育、历史等众多领域，人物也来自各个时代，从15世纪的早已灰飞烟灭的历史古人到80后的生龙活虎的人气小生。这本书没有选取韩国最伟大人物TOP35，而是选择韩国最热门人物TOP35，目的就在于最大限度地展示韩国社会的各个层面、韩国人的各色人生展示出来。章节安排也不拘泥于时间顺序，编者将韩国政坛的一对父女朴

瑾惠和朴正熙作为本书的首尾，且以朴瑾惠开篇，以朴正熙结尾，旨在象征生命的轮回，生生不息。一个家族的奋斗史，是父辈孙辈接力奋斗的历史，一个国家的奋斗史，是十几代乃至几十代人不懈努力的历史，而整个人类的文明史，更是漫长的薪火相传。

本书所附 MP3 光盘收录了部分精选文章的精彩朗读，由韩语专家倾情奉献。相信通过本书的学习，您的韩语阅读、听力、口语等能力一定能够得到进一步的提升。

感谢本书编委会各位成员——北京大学邓倩，北京外国语大学张晶晶、姜遥，北京第二外国语学院张毛毛，北京语言大学王欣，上海外国语大学张艳菊、徐春兰，青岛大学杜翠芳为本书付出的辛勤劳动。

另外，感谢远在泰国参与汉语传播志愿服务的李啸闻（山东大学）为本书文章撰写感悟心得。

韩国高丽大学李然、韩国国民大学郝薇，以及 SJ 宝蓝阁（www.sjbluecn.com）也给予了本书极大的支持，在此一并致谢。

编者

2008 年初冬于北京

目 录

第一章 政坛木槿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나를 움직인다——박근혜	2
“绝望使我坚强，希望促我前进”——朴瑾惠	5
“세계 대집사”——반기문	10
“世界大管家”——潘基文	15
“현대왕국”의 창업자——정주영	20
“现代王国”的缔造者——郑周永	26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한명숙	31
韩国宪政史上首位女总理——韩明淑	34
제 17대 대통령——이명박	38
韩国第17届总统——李明博	44

第二章 文艺蔷薇

바람의 딸——한비야	51
风之女儿——韩飞野	56

예술과 복지사업으로 청각장애를극복한 화백——김기창	62
追求艺术投身福利，战胜听觉障碍——画家金基昌	66
“엿장수 딸에서 하버드대 박사까지” ——희망전도사 서진규...	71
从糖贩女儿到哈佛博士——“希望传道士”徐贞圭	74
아이디어 넘치는 구글의 로고 디자이너——황정목	78
创意无限的Google首席徽标设计师——黄正穆	81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 ——작가 장영희	85
“活着，就是最大的祝福” ——作家张英熙	88
노력하는 천재 음악가——정명훈	93
天才源自勤奋——音乐家郑明勋	95

第三章 演艺海棠

연습벌레 발레리나——강수진	101
“我为舞狂”芭蕾舞演员——姜秀珍	105
“나는 아직 대표작이 없다는” 감독——임권택	111
“没有代表作”的电影导演——林权泽	114
끝없이 노력하는 한국가수왕——비	119
不懈努力成就韩国歌手之王——Rain	123
산소같은 여자——이영애	129
氧气美女——李英爱	132
대한민국의 “천하장사” ——강호동	139
大韩民国的“天下壮士” ——姜虎东	142
우여곡절끝에 선공한 여가수왕——이수영	148

经历人生迂回曲折后而得以成功的女歌王——李秀英.....	151
가출해서 성공한 젊은 연예인——이준기.....	156
从“离家少年”到成功艺人——李准基.....	159
꿈을 따라가는 소년들——슈퍼주니어.....	166
追梦少年——Super Junior.....	174

第四章 体育月桂

조훈현 바둑 인생이야기.....	185
曹薰铉的围棋人生.....	191
“할테면 최고가 되라”——바둑신화 이창호.....	199
“要做就做最好”——围棋神话李昌镐.....	204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의 사나이”——프로 골퍼 최경주.....	211
“不言放弃的执著男子汉”——高尔夫职业选手崔京周.....	218
아시아 홈런왕——이승엽.....	228
亚洲本垒打之王——李承烨.....	232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박지성.....	239
韩国首位英超球员——朴智星.....	244
이지세계의 도전자——허영호.....	250
未知世界的挑战者——许永浩.....	253
프로 게임어인 임요환의 자서전.....	258
电子竞技职业玩家——林遥焕的自传（节选）.....	265
태환이는 담력이 남다른 아이였다.....	275
泰桓是有胆量的孩子.....	278

第五章 历史文竹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역사적 인물 세종대왕	285
韩国历史上最优秀的历史人物——世宗大王	289
조선 주자학 대표학자——이황.....	293
朝鲜朱子学代表人物——李滉.....	296
현모양처 귀감이 되는 인물——신사임당.....	300
贤妻良母典范——申师任堂.....	304
경국제세의 사상가——율곡 이이.....	309
经世治国的思想家——栗谷李珣.....	313
불멸의 영웅——이순신.....	319
不朽的英雄——李舜臣.....	322
조선의 마지막 국모——명성황후.....	326
朝鲜末代国母——明成皇后.....	330
백범김구선생님.....	335
“白凡”金九先生	340
한국 근대화 실현에 나선 대통령——박정희.....	346
使韩国实现现代化的总统——朴正熙	351

第一章

政坛木槿

在这一卷人物画廊里，他们好像是被诅咒过的人——一生要躲过无数明枪暗箭，然后在一发最狡诈的子弹下长眠。然而他们又是被祝福的人——所行之处被敬仰的眼神包裹，被欢迎的声潮推拥，被美丽的鲜花簇拥。

他们好像是最落魄的人——自己抑或牵连家人要在潮湿阴冷的监狱惨淡度日，老鼠和霉菌是他们的伙伴。他们好像是最得意的人——青瓦台是他们经年的居所，木槿花与太极旗是最美的家装。

他们好像是最冷酷的人，即使面对最尖刻的责难也难改他们镇定的面容。他们好像是最温情的人，即使路边挨饿的老妈妈也会引出他们爱怜的泪水。

他们好像是最有城府的人，记者们已经很难在细枝末节抓住他们话语的把柄。他们好像是最粗疏的人，常常忘了生日、结婚纪念日、情人节，家庭的日历上满是遗忘的瑕疵。

他们为无数子民做好公仆，却不为唯一的女儿做好父亲。他们为流离失所的民众建设家园，却不能给空闺的妻子些许安慰。

.....

无论何时，何人，都改变不了这些只属于他们的共同特征。

特别是——他们生命的旋律中只有一支歌——歌中的“无穷花”，就是木槿。

国花在国旗顶端绽放，不知是不是韩国绝无仅有的心裁。在太极旗之巅，木槿花涵蕊吐香。一条花枝上，苞蕾点点，此花谢而有彼花续，前赴后继，生生不息，有如无穷。

锦绣江山三千里，无穷花遍野盛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박근혜

“绝望使我坚强，希望使我前进。”

——朴槿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박근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이자 희망의 리더로 불리는 박근혜, “열두살부터 지낸 청와대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부모님의 국정 운영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국가 운영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젊은 나이에 양친을 잃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기까지, 올곧이¹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만의 굳센 신념과 희망에 대한 믿음...

외로움과 배신에서 벗어난 여자

박근혜는 1979년 10월 26일 사태로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청와대를 떠났다. 대통령에 취임한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온지 15년 만으로, 그의 나이 27세였다.

¹ 올곧다 [形]: 直性子, 正直

박근혜는 두 동생과 신당동 사저¹로 돌아왔을 때의 심경을 “첩첩산중²에 버려진 심정이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울까 싶었다” 고 했다. 더욱이 당시 새로 등장한 신군부는 그의 모든 활동을 막았다. 박근혜는 이때의 기억을 2007년 펴낸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정권(신군부) 차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매도³가 계속됐다. 우리 삼남매는 부모님 기일을 포함한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6년 동안 아버지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치를 수 없어 집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인심은 더욱 허망했다. 불과 어제까지 유신정권의 녹을 먹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오지 않았다.

박근혜는 1985년 6월 22일 일기에서 “마음 속에서 증오, 원망, 복수심 등의 끈질긴⁴ 집념⁵을 수시로 지워 버리고 내쫓는 일은 그 순간순간이 기도이며 생의 원리원칙이 될 것이다.” 라고 썼다. 박근혜의 한 측근 의원은 “박근혜가 ‘신의’와 ‘의리’를 좌우명처럼 내세우는 것도 이 시기에 혹독한⁶ 배신을 체험한 것과 관련이 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 의원은 “그 시절 믿을 것은 가족과 자신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을 것이다” 이라고 했다.

박근혜가 다시 공개적으로 외부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난 일이다. 그는 아버지를 재평가하는 일에 매진했다. 1988년 박정희기념사업회를 발족했고⁷ 1989년엔 근화봉사단을 조직했다. 아버지를 기리는 ‘겨레⁸의 지도자’란 책도

1 사저 [名]: 私宅, 私邸

2 첩첩산중: 层峦叠嶂的山中

3 매도하다 [动]: 谩骂

4 끈질기다 [形]: 固执, 牢靠, 强韧

5 집념 [名]: 固执, 执拗

6 혹독하다 [形]: 严酷, 残酷, 毒辣

7 발족하다 [动]: 创立, 成立

8 겨레 [名]: 同胞, 同族

냈다.

눈물을 비치는 길 세 번

권력의 허망함을 깨달은 박근혜지만 ‘국가’에 대한 애정의 꿈을 놓진 않았다.

박근혜를 가까이에서 보좌한 한 인사는 “그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눈물을 비치는 길 세 번 봤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박근혜는 부모가 흉탄에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대중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눈물을 보인 경우를 세 번 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던¹ 고엽제 피해자가 ‘나는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쳤는데, 조국은 내게 무엇을 해줬느냐’고 항의할 때와 미국 하버드대를 방문했다 625 참전 용사 명단을 보았을 때죠. 그리고 한 번은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때 빈소²에서 만난 유가족³이 박근혜를 붙들고 ‘대학원에 진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사지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울부짖⁴을 때였어요.’ ‘이 여자는 국가, 민족, 국민 같은 개념에만 감동하는구나’ 싶어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노무현 탄핵⁵ 과 당 대표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이 다수이던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기존의 정당 이미지와 걸맞지 않은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1 파병되다 [动]: 派兵

2 빈소 [名]: 灵堂

3 유가족 [名]: 遗属

4 울부짖다 [动]: 哭嚎, 哀号

5 탄핵 [名]: 弹劾

국민의 외면을 받고 탄핵 소추마저 물거품 되고 최병렬 대표마저 사퇴하게 된다.

이때 착실하게 당내에서 입지를 쌓고 있던 박근혜가 그의 뒤를 이어 3월 23일 당 대표가 되었다. 기존의 다선의원, 중진의원, 운동권에서 포섭해온 세력 등과 다르게 박근혜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표명했고,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원내 1당의 자리는 내주었지만 121석을 차지하여 예상외의 선전을 하였다.

박순천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여성 당수가 된 그녀는 선거 승리를 위한 한시적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깨고 오랫동안 당대표 자리를 지켰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창호가 휘두른 문구용 칼에 베어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에게 선거 판세를 물어보는 등의 모습을 보여 당 안팎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04년부터 한나라당의 위기와 재도약을 이끈 박근혜는 2007년 대선의 유력한 예비후보중 하나였다. 박근혜의 가장 큰 적수는 서울시장인 이명박이었다. 한나라당 당원 투표와 국민 투표를 종합한 경선에서 박근혜는 당원 투표에서 승리하였으나 국민 투표에서 수도권에서 큰 차이로 패배하면서 2007년 대선 한나라당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끝이 없다. 국민을 위해 살겠다는 초심을 더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绝望使我坚强，希望促我前进”

——朴瑾惠

当代韩国女性领导人的代表，“希望的领导者”——朴瑾惠，“从

12岁开始就生活在青瓦台，每天在一旁观看父母处理国事，耳闻目染之下，对国家管理运行甚为熟悉。”

朴瑾惠年纪轻轻即失去双亲，凭借自己的力量登上了成功的巅峰。她对于自己走过的道路始终怀着坚定的信念和不灭的希望。

走出孤独与背叛的阴霾

1979年，“10·26事件”朴正熙总统遇刺身亡之后，朴瑾惠也结束了在青瓦台15年的“第一夫人”生活，是年她27岁。

与两个弟弟搬到首尔私宅后，朴瑾惠如同被抛在了深山之中一样，心中充满了迷茫、无助和孤独。当时刚上台的新军部取消了他们所有的公众活动，朴瑾惠在自传中也曾提到这段生活，“从青瓦台出来以后，掌权（新军部）的人对父亲的谩骂仍在继续。我们三兄妹根本无法参加任何活动，甚至连父母的祭日都不可以出去。整整6年时间，我们都不能公开为父亲举行悼念仪式，只能在家中默默地祭奠。”人心更是难测，树倒猢猯散，昨天还吃着维新政权俸禄的人们，今天早已不知去向。

朴瑾惠在1985年6月22日的日记里写到，“永远消除内心的憎恨、埋怨、报复等固执的想法，是我每一刻的内心祈祷和生活原则。”朴瑾惠身边的议员也说过，“朴瑾惠一直强调的‘信义’和‘义理’，其实跟那个时期她经历的背叛有着密不可分的关系。”“那个年代她感到除了家人和自己，任何人都不可相信。”

直到全斗焕政权下台之后，朴瑾惠才重新回到人们的视野，她一直在为还父亲一个公道的历史评价而奔走。在她的努力下，朴正熙纪念会于1988年正式成立，并在1989年组织了瑾花服务团，真实记录其父一生的传记《民族的领袖》也顺利出版。

铁娘子的三次落泪

朴瑾惠虽然深深体会过权力的虚妄，但是她对祖国的赤诚之心始终未变。

朴瑾惠的身边人士说，“在公开场所曾经看到她三次流泪。就连在父母被刺时，朴瑾惠也不曾在公众面前落泪，然而为了自己深爱的人民，她却屡屡落泪。她第一次流泪，是在听到越南战争中的伤员说‘我为祖国牺牲了一切，而祖国又为我做了什么’之后。第二次是访问美国哈佛大学时，看到6·25战争中参战的勇士名单，不禁潸然泪下。最后一次是“已故金善日被杀事件”中，在死者的灵堂里，听到遗属们的哀号‘为了要挣学费而去了沙地，结果就这么走了’，她泪流满面。看到这位出了名的铁娘子，为了国家、为了民族、为了国民而潸然落泪，我心头不禁一颤。”

临危受命 力挽狂澜

2004年3月12日，在大国家党占多数席位的第16次国会中，大国家党联合新千年党对总统卢武铉进行了弹劾，并且进行了绝食、静坐示威等与大国家党政党形象不符的一系列活动，这立刻引起了国民的一致反对，最终这次弹劾无果而终，而且大国家党党代表崔秉烈也被迫辞职。

就在此时，在党内一向以“踏实认真”闻名的朴瑾惠临危受命，于3月23日继任大国家党党代表。上台之后，朴瑾惠与党内的多选议员、领导议员、运动圈人士不同，通过数次召开记者招待会，向全体国民真诚地道歉。在朴瑾惠的努力下，第17次国会中大国家党虽然失去了院内第一大党的地位，但是仍旧获得了121个席位这个出人意料的佳绩。

朴瑾惠是继朴顺天之后，第二位当选为党代表的女性政治家。为了顺利进行总统大选，人们认为朴瑾惠只会暂时担任党代表，然而她却出乎众人意料，长期担任了党代表的职务。2006年，朴瑾惠在参加大国家党市长候选人竞选活动时，被不明身份的男子用文具刀割伤了脸，而她毫无惧色，仍旧向党员询问选举情况。巾帼不让须眉，朴瑾惠的英勇之举，赢得了党内外的高度支持。

自从2004年解救大国家党于危难之时，朴瑾惠就成为2007年总统大选的有力候选人之一。在大国家党党内，朴瑾惠最大的竞争对手就是首尔市市长李明博。朴瑾惠在大国家党的党员投票中虽然获得了胜利，然而在国民投票中，由于首都圈的投票差异惜败李明博，无缘此次总统选举。

然而，韩国国民对于朴瑾惠的关心和支持不会止于此次失利。这位永不言败的铁娘子，在今后的政治生涯中，也定会为国为民，一如既往义无反顾。

(徐春兰 邓倩 译)

▶▶▶ 感悟链接

也许没有什么道理，但这个从少女时代开始在青瓦台居住了十几年，又被迫离开的女子，让人想起在宫廷斗争中失利的王侯，流放做远方的败寇；让人想起红楼梦醒、大厦哗啦啦倾倒，在街头扎风筝领善粥的落魄作家。

人生际遇的潮涨潮升，原来大抵相似。

那些怀恨的王公贵族，或被杀灭口，或郁郁寡欢；那些穷困潦倒的作家，即使是曹雪芹也不免饮愁浇苦，悲吟痛苦——他们曾经的居所，再也回不去了。

但是这个女子却回去了。

因为心中无恨，大爱无疆。